

중국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선별적 조정'책 출범

참고소식, 2014년 7월 30일

[미국<Hong Kong Daily News> 7월 28일 보도] 국무원이 종전에 시행한 일련의 미니 경기 부양책에 이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중국 대륙의 언론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간정부방권(簡政放權,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급에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형 신생벤처기업 부양 정책을 연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최근에 개최된 간담회에서 간정부방권(簡政放權)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신생벤처기업 부양책을 연구 및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의 융자난과 융자 원가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기업들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제도에 발목을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사전 심사비준 항목과 자격인증 사항을 조속히 취소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편리화를 도모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공평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Hong Kong Economic Journal> 7월 29일 보도] 제목: 정치국 회의, 하반기 방향계

은행주와 증권사 주식이 상승세를 타면서 28일 중국 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2.4% 상승하여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의 부활'을 위해서는 '산전수전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올해 7.5%의 성장율을 확보하기 위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특정부문 조정'책과 고속철도 등 고정자산 투자 확대가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되찾아 주고 있다.

종전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현 단계 경제 하행의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함과 더불어 일련의 '미니경기부양책'을 출범하였다. 이는 최고지도부가 하반기의 경제형세에 대한 능후한 '우환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홍콩경제일보> 7월 28일 보도] 제목: 하반기 경제 '정책 관철'에 힘써.

올해 하반기 국무원은 기업의 높은 용자비용 등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한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방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난 주 까지 상반기 경제 수치를 발표한 29개 성(구,시) 중 허난(河南), 칭하이(青海)를 제외한 기타 성(구,시)의 국내생산총액 증가율이 저년동기대비 하락했다.

중국 경제는 '지방이 중앙을 포위'하는 국면을 지속해 왔으며 중앙정부가 거시적 조정을 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봐야만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면에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번째 변화는 지방 경제의 침체는 주로 큰 환경의 변화로 인한것이고, 두번째 변화는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구조조정 수요에 따라 지방정부를 밀고 나가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은 하반기 지방 경제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국무원 지도부는 현 단계 중대한 개혁 조치의 실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심을 쏟고 있다. 멀지 않아 국무원은 도시화 가속 추진 등 중대한 개혁 조치를 출범하고 해양과 대륙 두개의 '뉴 실크로드', 경진기(京津冀) 일체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를 가속화 추진함으로써 하반기 중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대만 <경제일보> 7월 28일 보도] 제목: 안정적 성장 확보를 위한 특정부문 경제학

요즘 중국 대륙경제의 핫 워드는 '특정부문'이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주도하는 거시적 통제는 '특정부문 조정'으로 불리우고 있다. 최근 북경 경제계에서 '특정부문 금리 인하'라는 표현이 새롭게 탄생했다.

'특정부문 금리 인하'란 실제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올해 중국 대륙의 경제는 '안정적 성장' 단계로 진입했다. 경제의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수단들이 발동되고 있지만 각 관계자들은 금리 인하를 호소해 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국 금융 당국은 여전히 움직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경제계에 의해 '특정부문 금리 인하'로 불리우는 정책을 최근에 출범했다.

'특정부문 금리 인하' 조치로 불리우는 첫번째 조치는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중국인민은행으로 부터 1만억위안의 담보보완대출(PSL, pledged supplementary lending)을 획득한 사건이다. 중국인민은행이 PSL을 공급하는 목적은 특정부문의 용자 원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국가개발은행이 발행하는 1년기 채권의 금리는 5% 정도였고 6월에 들어서서는 4.3% 이하로 하락했다. PSL의 금리가 이보다 높을 수는 없을것이다.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면 1만억위안 PSL은 비대칭적 '특정부문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게 된다. 보다 큰 규모의 '특정부문 금리 인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출범함으로써 기업들의 용자 원가가 높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독점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 국유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중국 기업들은 모두 용자난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기업 간담회를 소집하고 단기간 내에 열가지 조치를 출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확실하게 관철되는 경우 기업들의 용자 체인을 단축시키고 단계마다 가격을 올리는 현상을 차단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용자금리1-2%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런 면에서 '특정부문 금리 인하'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